

# 스카우트 대원들, 마지막 추억 쌓다

7개국 520여명 대원  
14일까지 전북 관광 나서  
도, 다시 찾고 싶은  
전북 만들기 전력 지원



지난 11일 잼버리 폐영 이후 사후관광을 신청한 7개국 520여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12일부터 14일까지 전북 관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도내 곳곳에서 관광·체험을 즐기며 전북에서 잊지 못할 마지막 추억 쌓기에 여념이 없다. 잼버리 대회 폐영 이후 사후관광을 신청한 7개국 520여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12일부터 14일까지 전북 관광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관광지로는 전주에서는 한옥마을을 찾아 전통성당과 경기전, 한옥 등을 관람하며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레일바이크 체험 등 색다른 액티비티를 즐기게 된다. 익산에서는 대표적인 세계문화유산인 미륵사지를 방문하고 장복정원 고스라에서 전통발효법에 대한 설명과 4천개의 전통한이리를 둘러보는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특히,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인기를 얻는 익스트림 스포츠 코스인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을 관광하고, 짚라인을 타며 바다 위를 나는 듯한 짜릿한 추억을 만들고 있다. 아울러 완주 BTS로드인 오성한옥마을과 위봉산성을 방문하며 케이팝(K-pop)그룹 BTS에 관심이 있는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흥미로운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아쿠아티파크 아미존에서는 무두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무주에서는 국립태권도원 공연단의 화려한 시범공연 관람과 태권도 품새 따라하기, 태권도원 가상현실(VR) 체험에 이어 수상활동(금강 래프팅)을 통해 스카우트 대원들의 협동심을 발휘하는 시간을 만들고 있다. 순창고추장 마을에서는 떡볶이와 인절

미 등 케이팝 푸드를 입실치즈파티에서는 치즈와 피자를 직접 만들어보고 맛보는 체험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김제 벚꽃에서 매듭공예 및 쌀 체험 등 농경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뒤 능계저수지 산책로를 거닐며 그동안의 피로를 씻어내는 힐링시간도 마련했다. 전북도는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한 관광을 위해 많은 인원이 몰리는 곳에는 관할 경찰서에 순찰 활동을 요청하

고, 이들이 숙박하는 전북대 생활관 시설과 할랄 식당 등 식사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내 가족이 관광한다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민전을 기하고 있다. 전선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에서 함께 한 시간이 스카우트 대원들의 꿈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고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즐겁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서 농촌체험

사후 농촌체험 HoHo 프로그램, 전주 원색명화마을 등 도내 12곳  
도내 농촌문화·먹거리 체험으로 한국의 마지막 좋은 추억 쌓아

전북도가 2023 새만금 제2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맞춰 기획한 사전·사후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문화관광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세계청소년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전북도에 따르면 잼버리 개최기간 전후인 지난달 30일부터 8월 1일까지,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각각 사전·사후 프로그램으로 도내 농촌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한 'HoHo 프로그램'을 운영, 총 20개국 1,000명의 대원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펼쳤다는 것이다. 전주 원색명화마을 등 도내 12개 시·군 숙박가점 20개 마을에서 진행된 HoHo 프로그램 사전 프로그램에서 인도, 리투아니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520명이, 사후 프로그램에서는

덴마크와 알제리, 도미니카 등 480명이 각 지역의 특색있는 농촌문화를 경험했다. 블루베리 효떡, 떡케이크, 들깨강정, 쌀피자, 두부 신안하이스크림 만들기 등 농산물을 활용한 각종 음식을 만들어 보고 오이나 옥수수 등을 직접 수확해 보기도 하는 등 농촌의 일상을 체험했다. 또한, 천연염색과 압화액자, 찜포미누, 라테마구니 만들기 등 친환경 자연소재를 활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체험에는 대원들의 손길이 바빠졌다. 더불어 허수아비 만들기, 농악배우기, 떡메치기, 미꾸라지 잡기 등 전통 놀이와 함께 청정자연과 어우러진 농촌의 모습을 눈에 담을 수 있는 도보 체험도 이뤄졌다.



스카우트 대원들이 전북에서 사후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맛을 즐기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대원들은 "한국의 비빔밥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만들어 먹으니 더 신기하고 맛있었다"고 평평하기도 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잼버리 기간동안 고생 많았고, 아름다운 자연과 한국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경관에 인상을 방문을 환영한다"며, "짧은 일정이지만 산과 평야가 어우러진 전라북도에서 농촌문화와 전통 먹거리를 체험하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김재훈 기자

## 도, 노인일자리아업 평가 4년연속 '최우수'

도-시군수행기관 3박자 협업 성과 쾌거  
2023년 노인일자리 251억원 6만8901명 추진

전북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2022년 실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광역 지자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기초 지자체에서는 부안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영예의 주인공이 됐고, 노인일자리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수행기관 평가에서는 전주시나 어를럽과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가 최상위 등급인 S등급(복수유형 평가) 기관의 영예를 안았으며, 군산시니어클럽,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익산시니어클럽노인복지회,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등 4개기관에서 B등급(복수유형 평가)으로 선정됐고, 김제시니어클럽, 무주반딧불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임실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취업지원센터, 전주 효자시니어클럽 등 12개 기관이 선정(단일유형 평가)되는 쾌거를 안았다. 또한 완주군 명지노인복지센터가 특별상으로 선정되는 등 도내의 많은 수행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수행기관들은 500만원부터 최대 3,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오는 9월 18일 '2-08142023년 노인일자리 주간 행사' 기간을 맞아 보건복지부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도가 노인일자리사업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결과,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임실시니어클럽, 어

르신들이 성실하게 함께 참여해준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품격있는 건강한 노후의 삶, 노년기 자아실현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확대 보급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초고령 저소득 어르신과 노후 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 노후 소득보장이나 지속적인 사회활동 지원을 통한 노인의 우울감 해소로 사회적비용 절감, 지역사회 공익증진 등 보이지 않는 긍정적 효과에 더 큰 의미가 있으므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사, 전라북도노인일자리센터, 시군 수행기관과 협력하여 수행기관 실무자교육, 노인안전 뿐만 아니라 평가대응 컨설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 전북도, 도내 축량업체 지도점검

전북도가 건전한 축량업 육성 및 양질의 축량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내 144개 대상 축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도는 도내에 등록된 144개(지적축량업 5개소, 공공축량업 82개소, 일반축량업 87개소) 축량업체에 대해 사전 안내문과 업체 자체 점검표 발송 등으로 1차 서면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나 자체 점검에 불응한 업체 등에 대해 9월 18일까지 2차 현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축량업 기술인력의 등록기준 준수여부, 축량업 장비 실제 보유현황 및 성능검사 실시여부, 소재지·기술인력·장비 등 변경 사항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불합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또 관계지는 "실태조사로 축량업체의 운영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건전한 축량업 육성을 통한 축량 서비스 제공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출 6차산업화 과제·대응 모색

전북연구원, 강원연구원과  
분권과 지역개발 포럼 개최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과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지난 11일 고창 상하농원 에서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출, 6차 산업-관광 연계 지역활성화'를 주제로 '제1회 분권과 지역개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 출품에 앞서 1월 12일 제주·세종·강원·전북연구원이 협약 체결한 '특별자치도 분권 포럼' 후속 포럼으로 개최되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반영 특례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 공유,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를 위한 과제와 대응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어 현진권 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중기 교수(전북대), 최진형 부장(6차산업활성화 전북지원센터) 및 관련 전문가들의 양 특별자치도 분권시대, 농업·농촌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남호 원장(전북연구원)은 "전북도는 우리나라의 대표 농업·농촌지역으로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6차산업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전략 마련에 나가기"고 말했다. 현진권 원장(강원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2차 개정으로 농지규제 특례가 개정되었지만, 더 많은 농업 및 농지에 대한 특례 개정 및 조례 제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특례 공유 및 논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상생협력 등 중간적 수준 지역적 수준"으로 구분에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는 강원연구원 박재형 연구

위원이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분권 특례와 향후 활용 방안을 주제로 농업분야 특례의 내용과 쟁점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박재형 박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농업 농업생산량 확보 위한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업진흥지역'과 증가하는 개발수요에 따른 '농지전용' 양방향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지규제 현황을 분석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농업진흥지역 소유자에 대한 보상 강화'와 '농지전용 심의회' 등의 제도적 보완방안과 강원특별자치도 반영 특례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 공유,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를 위한 과제와 대응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어 현진권 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중기 교수(전북대), 최진형 부장(6차산업활성화 전북지원센터) 및 관련 전문가들의 양 특별자치도 분권시대, 농업·농촌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남호 원장(전북연구원)은 "전북도는 우리나라의 대표 농업·농촌지역으로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6차산업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전략 마련에 나가기"고 말했다. 현진권 원장(강원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2차 개정으로 농지규제 특례가 개정되었지만, 더 많은 농업 및 농지에 대한 특례 개정 및 조례 제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특례 공유 및 논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상생협력 등 중간적 수준 지역적 수준"으로 구분에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는 강원연구원 박재형 연구

## 전라선 수서행 고속열차 내달 1일부터 신규운행

전주·남원서 서울 강남권까지 환승 없이 진입 가능

전북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전라선에서 수서행 고속열차 SRT(수서~여수)가 매일 상·하행 2회씩 총 4회를 신규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주, 남원에서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경기도 동남부지역(관교, 동탄, 광주 등)을 환승 없이 진입할 수 있어 시간적·경제적 절감 효과 및 철도교통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속열차 운행 횟수 증가로 전라선의 민선적인 좌석 부족 현상 해소와 관광객 유입 증가로 인한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수서행 SRT의 전라선 신규 운행

은 국토교통부가 2023년 업무보고 시 수서발 3개노선 고속열차 도입을 발표했으며, 지난 1월(9월)에 신규노선 운행 면허를 발급하면서 확정됐다. 한편(9월)에는 신규운행에 따른 예약·발매시점을 8월 11일 오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라선 수서행 고속열차(SRT) 투입으로 도민들이 서울 강남권 수도권 동남부 방문 시 겪어온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어 기쁘다"며 "철도 도로 공항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SOC 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이동시간 단축 등 교통서비스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도, 장애인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운영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 5개소

전북도는 도내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 5개소(군산·남원·진안의료원, 남원노인요양병원, 마음사랑병원)를 '장애인화 건강검진기관'으로 2023년까지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은 장애인 비율(전국 5.1% 전북 7.4%)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두 번째로 높고 2020년 기준 도내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58.8% 비장애

인 수검률 74.8%(비도 18%p) 낮은 상황으로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등 예방의료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내 공공의료기관 5개소가 2023년 12월 이후 장애인화 검진기관으로 당당 지정될 예정이다. 또에서는 장애인 안전하고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 인력과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 충족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시설·장비 개보수 등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